# ‘허쥬마’ 캐나다 시판허가… 3.5조 북미 시장진입 ‘가속도’

〈유방암·위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미국 이어 캐나다 허가
‘허쥬마’ 적응증에 대한 효능입증
테바와 협의해 론칭 시점 결정

셀트리온은 현지시간 6일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유방암·위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허쥬마(Herzuma)’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판매 허가에 이어 캐나다 허가 까지 받게 되면서 3조 5000억원 규모 북미 시장 진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허쥬마는 트라스투주맙 바이오시밀러로 초기 유방암(EBC), 전이성 유방암(MBC) 및 전이성 위암(MGC) 등 3개 적응증에 대해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허쥬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은 제넨텍이 개발하고 로슈가 판매하는 ‘허셉틴’이다.

캐나다 보건부는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통해 도출된 종합적인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초기 유방암, 전이성 유방암, 전이성 위암 등 적응증에 대한 허쥬마의 안전성과 효능이 오리지널의약품과 동등함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허셉틴은 지난해 기준 글로벌 연간 매출 8조7000억원(70억 스위스프랑)을 거둔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이중 미국, 캐나다 등 북미시장 매출은 3조5000억원(28억 스위스프랑)에 이른다.

셀트리온 의약품의 해외 유통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허쥬마 북미 지역 유통 파트너이자 항암제 분야에서 강력한 영업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테바(TEVA)와 협의해 론칭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쥬마 미국 판매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캐나다 허가 까지 획득하며 전체 3조5000억원에 달하는 북미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특히, 캐나다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를 위시해 지난 5월 오리지널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로 대체처방하는 바이오시밀러 확대 정책 도입을 통해 의료 재정 절감 및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바이오시밀러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를 높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램시마 허가를 통해 캐나다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트룩시마도 올해 4월 승인 받고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허쥬마 승인까지 셀트리온 항체 바이오시밀러제품 3종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모두 판매 허가를 받은 만큼 이를 통해 북미 지역 환자들을 위한 고품질의 바이오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셀트리온 주요 제품 북미 허가 현황〉

| 제품 | 미국 (FDA) 허가 | 캐나다 (Health Canada) 허가 |
|---|---|---|
| 램시마 | 2016년 4월 | 2014년 1월 |
| 트룩시마 | 2018년 11월 | 2019년 4월 |
| 허쥬마 | 2018년 12월 | 2019년 9월 |

/자료=셀트리온

## LF 헤지스, 친환경 소재 ‘에코풀’ 라인 출시

친환경 발수제 활용, 에너지 자원 절약

LF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HAZZYS)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에코풀(ECOFUL) 라인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헤지스는 필(必)환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환경 친화적 소비를 적극 실천하는 ‘그린슈머’를 위한 여성 의류 라인 ‘에코풀’을 새롭게 출시한다.

그린슈머란 자연을 상징하는 말인 ‘그린(green)’과 소비자라는 뜻을 가진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친환경적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헤지스 에코풀 라인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는 ‘리싸이클 폴리’와 ‘마이크로 텐셀’로 원단부터 친환경적이다. 또 솔벤트 재사용, 친환경 발수제 활용을 통해 물과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절감하는 친환경 공정을 적용했다.

헤지스의 에코풀 라인 트렌치코트에는 한 벌당 1.5L 페트병 약 30개, 퀼팅다운은 1.5L 페트병 약 3개를 재활용한 폴리 소재가 적용됐다. 블라우스, 셔츠, 재킷에는 친환경 공법으로 재배한 유칼립투스 나무의 셀룰로오스에서 얻은 천연섬유 ‘마이크로 텐셀’ 소재가 사용됐다.

2019 F/W 헤지스 여성 에코풀 라인 화보. /LF

헤지스의 에코풀 라인은 총 20여 가지로 출시됐으며, LF몰 및 전국 헤지스 여성 매장 내 별도의 에코존(ECO ZONE)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고촌 정신 잇는다… 종근당, 탄생 100주년 기념식

가족사 임직원 350명 참석
“이종근 회장 철학·이념 새겨”

종근당은 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종근당 창업주 고(故) 고촌 이종근 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해 종근당과 가족사 임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기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추도예배, 회고 및 헌정 영상 상영과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집례로 추도예배가 진행된 후, 종근당 전직 임직원과 종근당고촌재단 장학생 등 10명이 이 회장과 관련된 일화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회고영상이 상영됐다.

태전약품 오수웅 회장은 “1960년대 항생제를 수입에 의존하던 시대에 종근당이 클로람페니콜 생산을 시작해 많은 이들이 병을 고칠 수 있었다”며 “이종근 회장님은 해외 출장 때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손수 엽서를 보내주시며 후배들에게 선진문화를 소개하고 큰 꿈을 갖게 해주셨다”고 회고했다.

마지막으로 생전 모습과 음성을 복원한 이종근 회장이 홀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 회장의 메시지를 통해 창업 당시의 초심을 다지고 종근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고촌 이종근 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종근 회장은 도전과 열정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불우한 이웃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던 참 제약인”이라며 “오늘 기념식에 담긴 이종근 회장의 철학과 경영이념, 업적 등을 찾아서 공감하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 로비에는 종근당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신진작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종근당 예술지상’ 작가 10명이 이종근 회장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헌정한 그림 10점이 전시되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고촌 이종근 회장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은 우리 손으로 지키고 싶다”는 신념으로 1941년 종근당을 창업했다고 1960~70년대 국내 최대규모의 합성공장과 발효공장을 설립하여 100% 수입에 의존하던 의약품 원료의 국산화를 이루어냈다. 신약개발에 대한 도전과 열정으로 1972년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중앙연구소를 설립했고 그렇게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는 2003년 항암제 신약 캄토벨, 2013년 당뇨병 신약 듀비에의 개발로 이어졌다. 이 회장은 1973년 사재를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위한 종근당고촌재단을 설립했으며, 남다른 인재사랑으로 1987년 종근당고촌학원을 설립해 육영사업에도 헌신했다.

/이세경 기자

## “화장품 해외직구, 국내보다 최대 95% 비싸”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국내외 가격 조사
배송대행료 비중에 따라 가격 변동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화장품 해외구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가격 등의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브랜드 화장품 15개 제품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13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2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인 해외직구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반영해 면세한도 내에서 최대 수량을 구매할 경우 8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7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수입 화장품 5개 브랜드(랑콤·맥·바비브라운·샤넬·에스티로더) 15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이 15개 제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13개 제품은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가에 비해 최저 0.7%에서 최고 95.3%(바비브라운/럭스 립칼라)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직구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은 2개로 최고 7.2%(랑콤/이드라젠 집중 수분크림)의 차이를 보였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아무리 가벼운 제품이라도 기본 배송대행료(약 1만3000원)를 부담해야 하는데, 단품 구매 시 총 구매가에서 배송대행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해외직구의 이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국제 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개의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면세한도까지 여러 개의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반영하여 화장품을 면세한도까지 최대 수량 구매할 경우 총 15개 중 8개 제품의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가에 비해 최저 1.7%에서 최대 42.5%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 BGF리테일-신한카드, 무인결제 서비스 개발

CU 바이셀프·신한PayFAN 결합

BGF리테일이 편의점 CU의 하이브리드 매장 활성화를 위해 신한카드와 손 잡았다.

BGF리테일은 신한카드와 함께 편의점 CU의 전용 셀프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CU 바이셀프(Buy-Self)’와 ‘신한PayFAN’를 결합한 무인결제 서비스 개발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신한PayFAN 고객은 CU 바이셀프 앱의 별도 설치 없이 서비스 동의만 하면 CU 하이브리드 매장의 셀프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CU 바이셀프는 BGF리테일이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개발한 셀프결제 앱이다. 스마트폰 하나로 상품 스캔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고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무인결제 시스템이다.

/김민서 기자

## 아모레 해피바스 저자극 바디로션 2종, 고보습 핸드크림 출시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는 그린릴리프 저자극 바디로션 2종과 고보습 핸드크림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린릴리프 ‘데일리 저자극 바디로션’과 ‘인텐시브 저자극 바디로션’은 하이포 알러지 테스트를 완료한 8가지 무첨가 제품이다.

자주 씻어 건조한 손을 위한 ‘그린릴리프 인텐시브 고보습 핸드크림’은 촉촉함을 오래 유지시켜 준다. 글리세린과 아르간 오일 배합 성분이 수분 증발을 낮추고 이중으로 보습 케어를 도와준다.

/김민서 기자